

사랑방 인도자 교재

사도행전 3 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14). 오순절에도 그들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1).

1. 제 구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1 절)

답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제 구시는 유대인들의 기도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늦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당신의 영적인 삶에 ‘제 구시’는 언제 어느 장소입니까?

답안/ 당신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정기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성의 깊이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표현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방문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3.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 절/ 참고 4:22)

답안/ 나면서부터 걸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이가 약 사십 세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이 사람의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적 장애인과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레 26:16-18).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으며 (삼하 5:8),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회적,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 감기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4.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3 절).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5 절)

답안/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은 은과 금(물질)이었습니다.

-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이 장애인에게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입에 풀칠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걸했습니다.
- 하지만, 이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5.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날 특별히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까? (4 절)

답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을 것입니다. 늘 지나던 길, 지나치던 사람인데 특별하게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 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위로와 평강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성령님께 쓰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6.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구한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 절)

답안/ 은과 금을 구걸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외침입니다.

- 6 절을 함께 읽어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결과적인 표현이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 이름을 믿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던 사람은 은과 금이 없다는 말에 실망하지도 않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듣고 반응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7.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구걸하던 사람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6 절)

답안/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것이 나음을 입은 것보다 선행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나아가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믿음의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삶에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요 1:12),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 3:16). 하지만 믿음의 회복과 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8. 구걸하던 사람이 ‘장애의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난 치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5, 6, 8 절)?

1) 금과 은을 구하던 마음에 (믿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 이 사람은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 할 때 크게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내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 부터 성전에서 구걸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기간 성전을 방문하실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2) 장애로 단절된 사회적 (관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 신체적 장애인과 접촉성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베드로는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어떤 사람도 잡지 않았던 그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자체 만으로도 구걸하던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 당신 주변에 누군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한 달 그 외로움을 어루만져 줄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3) 저는 자가 뛰는 사건으로 메시아의 (영적) 치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사 35:6).

- 사십 년간 스스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 개인의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 이사야 선지자는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면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 35:6). 이 사람이 치유받고 뛰는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 되었음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회복과 구속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9.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15 절)

답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에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단면입니다.
-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1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9, 26 절)

답안/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 회개는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 회개는 성결한 삶을 갈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분별하고 이길 능력을 키워 줍니다.
- 예수님은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을 자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3:10). 오늘날 처럼 실내 단장이 되어 있지 않은 흙먼지 집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Ex) 캄보디아
-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능력을 키우고 주님의 뜻을 좇아 가십시오.